

순회전시 大田서 幕 내려

各界人士 대거참석 홍보효과 커

大賞制定으로 施賞幅 넓혀

장장 33일간 전국 5 대도시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던 회원작품 순회전시회가 지난 7월16일 대전시민회관에 서의 전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마지막 전시회의 막을 올리게 하기 위한 지난 7월12일의 대전시민회관에서 있었던 개막식에는 본회 具琿會회장을 비롯한 金一榮이사, 柳根洌 대전지부장 등 본회 임원진이 참석한데 이어 외빈으로는 유 홍수충남지사, 대전시장, 대전일보사장 등 각계 인사 등이 대거참석, 개막테이프를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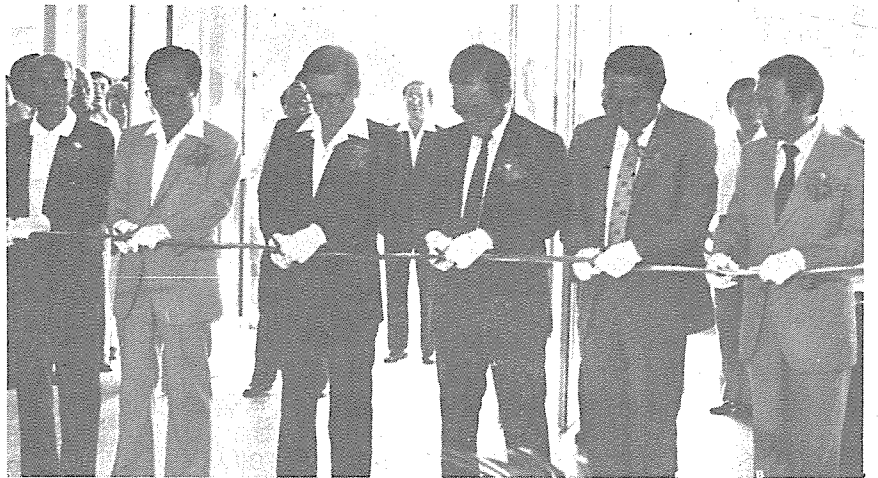
참석한 각계인사들은 전시장을 둘러보고 건축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히고 다과를 나누며 화담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具회장은 개막식에 이어 소속 회원들과 중식을 나누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협회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참석회원들과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전시회를 총 결산하면 우선 관람객 수가 예년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같이 관람객이 늘어난 까닭은 첫째, 종래의 서울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1개 지역위의 전시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시지역의 확산에 있었으며 둘째로는 이에따른 홍보활동이 잘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주요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보도와 TV뉴스를 이용한 전국적인 방영이 시민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몫을 했다.

전시회의 성과가 관람객의 많고적음에 달려있다고 할 때 이번 전시회의



□ 순회전시 마지막지역인 大田개막식

성과는 당초 예상을 넘는 큰 성과를 기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관람객이 참관했다는 외적인 평가가 수준이상이라는 호평을 받을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시회를 마련하기까지의 과정, 즉 내적 충실에 큰 힘을 쏟은 결과라고 하겠다.

본회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작품수집에서부터 새로운 상(대상) 제정, 심사, 개막식, 지방전시, 시상식, 작품수송 등 각 부문에 정성을 들여 빈틈없고 나무랄데 없는 전시회로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로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지에서 개막식에는 각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번 전시회의 목적인 "건축에 대한 일반의 인식제고" 달성에 건인차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물론 출품작품의 수에서도 예년에 비해 많았고,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에서도 밝혔듯이 작품수준도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이 작품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더욱 뜻깊게 한 것은 종래에 없었던 건설부장관상(대상) 제정이며, 지난해까지 협회상 시상시 매년 10월 중에 있었으나 금년에는 이를 앞당겨 실시한 것과 더불어 시상 폭을 넓혀 새로 건설부장관상을 제정해서 보다 권위있는 시상제도로 승격할 점을 들 수 있다.

서울서 연장전시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각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분류해보면 일반인, 학생, 건축관계인,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울 약 3천명, 부산 약 1천8백명, 대구 약 2천5백명, 광주 약 2천명, 대전 약 1천5백여명이 각각 1주일에 전시장을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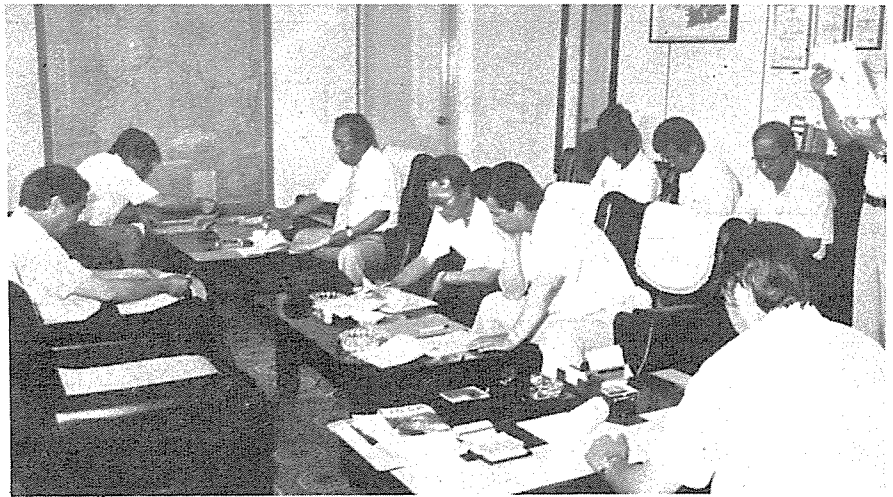
특히 서울의 경우는 1주일간의 전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각계의 요구로 지방전시가 모두 끝난 7월16일 이후부터 7월말까지 연장전시하기로 하고 현재 본회 전시장에서 계속 전시하고 있다.

任員 協議會 개최 현안문제등 중점협의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점검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임원협의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具沅會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데 이어 16개사항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는 순회전시회 종료를 비롯해서 이에 따른 시상완료 내용, 전기통신공사 설계용역 입찰거부, 원천징수세무조사수검 등 10여개 업무에 대한 집행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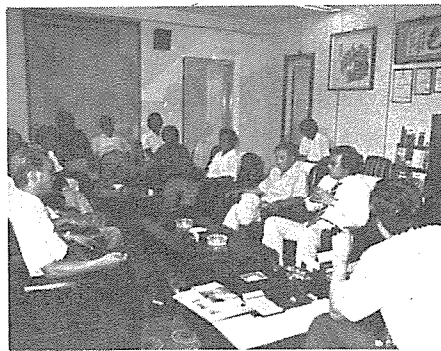


이어서 협의사항으로는 먼저 8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협의와 예산안편성과 이에 따른 예산규모대책, 납세조합실시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소득세율인하검토

문제, 회지발간방안검토, 준회원에 대한 회비징수문제, 회관건립문제, 회원의료보험문제, 건축사현장제정, 보수율 덤핑방지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在美건축가 초청 간담회

金秀文씨—본회회의실에서



在美건축가 金秀文씨 초청 간담회가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具沅會회장을 비롯하여 본회 임원 등이 참석하여 건축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이날 대담내용은, 일종의 친목단체인 남가좌주 건축가협회의 근황에 대한 설명을 金秀文씨로부터 들은 다음 본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건축사들을 돕기 위한 서로의 정확한 건축기술자료와 정보교환, 국내 건축사들의 미국 방문이나 초청에 의한 연수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계속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金秀文씨로부터 미국 건축설계사무실의 근황과 운영방법, 설계 및 감리비에 대한 미국과 한국 실정의 비교, 모든 건물이 조립식으로 건축되고 있는 현재 미국의 건축계 동향, 10~15% 정도의 합격을 밖에 보이고 있지 않은 AIA 라이선스 취득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金秀文씨는 지난 65년 한양공대 건축과를 졸업한 후 渡美, 78년에 미국 건축가협회 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Maxwell Starkman AIA & Associates의 한국 Project Director 직을 맡고 있고 남가좌주 건축가협회 Membership Chairman 직도 겸하고 있다.

한편 具沅會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金秀文씨에게 기념패와 기념케너트를 전달했다.

편찬위원회

회지 편집계획수립을 위한 제8회 편찬위원회(위원장 朴商濤)가 지난달 30일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호에 대한 종합 합평과 이어서 8월호 편집계획 수립에 들어 갔다.

7월호 합평에서는 사진인쇄상태의 결함과 작품게재상에 있어서 설계사무소의 정확한 명기 등이 지적되었으며 8월호 편집의 주안점은 회원작품은 주로 사무실 빌딩 등을 수집게재하고 이에 따른 회원논문 등을 실기로 했다.

“숨은 일꾼”으로 수상

제주지부 새마을 중앙본부서

제주지부(지부장 金守賢)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로부터 “새마을운동 숨은 일꾼”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동지부는 제주도 직능단체 새마을운동회원 104개 단체 가

운데서 숨은 일꾼으로 뽑혀 이날 중앙본부장표창을 중앙본부별관 강당에서 수상하게 된 것이다.

전국 38명의 숨은 일꾼들과 함께 상을 받은 동지부는 그동안 주요공적으로 제주도 증산간 도로확장공사공구구입비지원, 지부 자매부락결연 및 지원, 제주 청소년학교 설계비봉사, 불우결연아동양육비지원, 기타봉사활동 등이 크게 평가돼 이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의 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낙도 경찰관 위문 행사

제주지부 회원 친목대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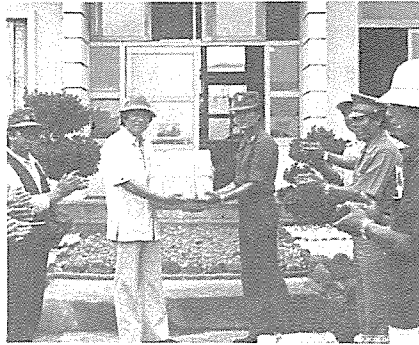
제주지부(지부장 金守賢)는 지난달 17일 낙도 경찰관 위문을 겸한 회원 친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동지부 회원과 임직원 15명은 복제주군 구좌읍 연평리 제주경찰서

우도지서를 방문하고 지리적 조건이 불편한 낙도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비롯, 초소 및 전투경찰대원 등을 방문한 동지부회원들은 14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위문행사에 이어 회원친목을 다지는 '낙시대회를 가졌다.



2 會員作品展 巡回展示: 全国 5 大都市(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순회작품전을 개최(82.6. 14~7. 30일까지)해서 총인원 2만여명이 관람, 大盛況을 이루었으며 특히 施賞幅을 넓혀 종래에는 없었던 건설부장관상을 제정, 展示會의 格을 높여 건축에 대한 일반의 인식제고에 큰 성과를 거둠.

3 弘報活動 展開: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고 회원 업무의 증진을 위해 홍보활동 展開. 放送相談 40여회, T.V 20여회, 日刊新聞廣告 및 記事 10회 實施. 특히 東亞日報 1面 全面廣告 이후 各機關에서 건축설계 用役入札制度를 바꾸는 등 큰 효과를 거둠.

4 特別銓衡試驗에 多數 合格: 3회에 걸친 銓衡에서 452명이라는 많은 會員들이 特別銓衡에 合格할 수 있도록 共同教育 實務강좌 등을 실시했음. 次後로도 계속 協會共同努力으로 特別銓衡試驗에 대처할 예정임.

5 建築士 業務報酬基準 作成: 現實적으로 맞지않는(1975년도 개정 이후 현재 사용) 보수요율에 대한 보완을 10여회에 걸친 회의 등을 거쳐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유보상태이고 이는 계속 연구보완하여 당국의 인가가 되도록 추진할 방안이며 시기상 유보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한국경제 여건상 당분간 유보
- ② 내용상의 차이점, 즉 금번 통과된 건축법 이외 건축사법상의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보수요율개정
- ③ 부처간 협의의 전제차

6 건축법·건축사법시행령 개정건의: 現實에 맞는 건축법·건축사법등이와 관련되는 法令에 대한 研究를 法研究分科委員會에서 數次에 다루워 支部長會議과 理事會議 등을 거쳐 關係 부처에 건의.

또한 이에 부수적으로 법, 령, 사항에서 많은 세부사항이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근일 내 령이

協會 業務報告

(1981. 5 ~ 1982. 7)

다음은 지난 1여년간 협회본부가 수행해 온 主要業務를 간추려 報告形式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동안 본회는 새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회원을 위한 협회육성에 회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많은 회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간의 業務內容을 옮기는 것은 안으로는 본부업무의 근간을 밝혀 보다 많

은 회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구하려는 뜻과 밖으로는 협회의 활동을 널리 홍보해서 일반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믿어서입니다.

또한 다수회원께서는 各支域別 支部의 동정을 대략 이해하고 계시질 사료되으나 本部業務 近況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아시고자 하시는 會員님들을 위해서 회지를 통해 보고드립니다.

(事務處長)

1 協會予算節減運營: 景氣 침체에 따른 세입감소로 협회운영 예산 집행을 건축체제로 전환해서 예산규모의 축소와 효율화를 도모(총계 약 6천여만원 절감).

① 月刊 建築士誌 쇄신: 每回 發刊비용을 경쟁입찰로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반면 會誌의 質을 높임(入札에 의한 發刊費 節約-年間 약 1,500만원: 이 予算으로 年二회에 걸쳐 특집 質려판 제작).

② 常設다목적展示場마련: 建築資材메이커의 협조로 本會會館 1층에

常設다목적 會議場 및 展示場을 마련하여 각종 세미나, 綜合展示場, 會議室 등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구멍(약 2천여만원 가량 시설비 協助).

③ 其他會員의 부담節減: 定期 및 臨時總會와 巡回展示會作品集 發刊, 각종 리셉션에 所要되는 費用을 資材메이커의 協助로 충당(기타 사무용 集기등 상당액 기증 받음). 그밖에 사무용품비용을 최대한 절감키 위해 복사기 구입, 전화사용 '억제, 각종소모품 절약으로 예산절감.

개정공포되면 세부 사항을 공문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요하게 변경 시행되는 사항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建築法施行令 改正理由

建築法の改正(1982. 4. 3 法律 第 3,558号)에 따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래 건축물의 構造, 設備 등에 관한 技術的인 細部基準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令에 規定되어 있던 사항을 建設部令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現行의 運營上 나타난 未備點을 整備補完하여 全文改正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특정가구 정비지구 안의 건축계획 승인을 서울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령 제 4 조 1 항)

● 건축물의 건축 중에 받는 중간검사는 종래에는 기초 및 옥상의 공사에 대한 중간검사로 2 회를 받도록 하였으나 민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초공사에 대한 중간검사 1 회만 받도록 함(령 제 11 조 1 항).

●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하자발생의 要因을 減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에 사용하는 건축재료 중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의 사용대상 품목을 종래 14종에서 27종으로 하였고 그 적용대상 건축물은 共同住宅에 한하던 것을 3 층이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령 제 25 조 별표 10)

● 都市生活에 필요한 도로·공원·광장 등 공공 空地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설계 樹立區域, 특정가구 정비지구 등 計劃的인 開發이 필요한 구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동구역 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용적율기준의 2 배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령 제 86 조 4 항).

● 종래 용도변경 허가의 번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은 건축으로 보아 규제할 대상을 한정하고 200㎡

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생략토록 함(령 제 99 조 1 항).

建築士法施行令 改正理由

建築士法の改正(82. 4. 3 법률 第 3,559号)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現行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 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建築士事務所에 소속되어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계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이외 대통령령으로 그 자격을 정하도록 한 건축사보의 자격범위를 새로 정함(령 제 2 조의 2).

● 종전에는 주택허가 업무에도 합동사무실이 아니면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고 연대하여 책임지던 사항이 단독사무소에서 조사·검사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단독사무소에서 주택허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됨.

● 기타 많은 사항은 그동안 회지를 통한 세부사항이므로 생략함.

7) 納稅組合設立推進: 1981. 6. 19 일 부터 公聽會 2 회와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납세조합 정관작성과 설립준비 후 서울지부를 시발로 국세청에 가입동의서를 접수 설립추진 중이며 정부의 교부금 예산관계로 보류 중이며 보류 원인은 다음과 같음.

보류 원인

- 납세조합 결성에 따른 교부금 예산에 미반영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37종의 직종 납세조합 신청에 따른 세입결산 우려
- 경제 여건과 경기부진에 따른 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보류되고 있으며 계속 국세청 당국과 협의로 추진할 방침임.

8) 회원의료보험제도 시행검토: 現행 법상 설계사무소는 사업소로 간주, 회원만의 의료보험수혜가 될 수 없는 실정으로 당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며 세

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現제 의료보험 설립기준은 회원이 10,000명 이상이 될 때 운영이 가능하므로 건축사협회만의 의료보험 조합 구성은 불가.
- 자영자인 건축사는 직원이 5인 이상만 되면 제 1종 의료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직원의 의료보험의 50%를 부담해 주어야 하며 의료보험료는 급료의 1.5% 범위 내에서 지불하면 하사라도 가입이 가능하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음.
- 회원의 영세성을 고려 회원만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추진 중이며 다만 예술인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관계 부처간에 協議中으로 계속 추진할 것임.

9) 上근副會長 就任: 본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상근부회장제도가 수립됨에 따라 지난 5월 26일 金基壽부회장이 취임했다. 협회업무의 확대와 아울러 제반기능의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신장 내지지위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부회장 제도는 사무처기능강화의 일환책이기도 하다.

10) 國會公聽會 公述人으로 選任: 국회 탄생 이래 처음으로 건축에 대한 公聽會가 1981. 11. 26일 시도 되었음. 국회건설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本人 등 6명이 공술인으로 선정, 本人은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건축법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을 피력하고 건축사의 권한이 없는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반을 조성하는 자는 건축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만을 행정처분하는 예를 들어 애로점을 역설함.

11) 建築情報 資料室 운영: 비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정보 자료실을 개설, 국내외 서적 등 참고 문헌을 보유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음. 현재 일부 회원들이 기증한 서적을 보관하고 있음.

12) 建築士所得標準率 引下 위한 업무: 建築士에 대한 소득표준을 인하로 회

원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이에 대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각종 표준율에 대한 조정작업이 9월부터 일제히 조사되어 12월 중에 확정되므로 이 기간동안 건축사의 원가계산과 타직종과의 비교를 통해 당국자와의 협의로 추진할 것임(각종 유행별 현소득표준율은 다음과 같음).

(정부소득 표준율표)

적요	금액	표준율
번호사	2,400만원 이하	35 %
	" 이상	38.5 %
보증인	" 이하	40 %
	" 이상	44 %
집달사	" 이하	42 %
	" 이상	46.2 %
사법서사	" 이하	36 %
	" 이상	39.6 %
공인회계사	" 이하	35 %
	" 이상	38.5 %
세무사	" 이하	29 %
	" 이상	31.9 %
평가인	" 이하	31 %
	" 이상	34.1 %
건축사	" 이하	27 %
	" 이상	29.7 %
공학건축기술서비스	" 이하	39 %
	" 이상	42.9 %
측량사(지적)	" 이하	28 %
	" 이상	30.8 %
기타	" 이하	36 %
	" 이상	39.6 %

13 富川分所 회원分争件: 會員 自律的으로 運營되고 있는 福祉會 분쟁에서 비롯된 부친분소 회원간의 不協和音 또한 行政上의 문제로서 政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등 복잡한 諸般問題點이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當事者로 하여금 소취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나 全般的인 事項은 別途 세밀한 實態 파악 후 검토 처리되어야 하겠으며 차후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임.

14 韓國電氣通信公社 設計用役 入札問題 時정: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주하는 전신전화국청사 신축설계 용역에

있어 본회 회원 21명에게 입찰토록 公文으로 통보된 것을 본회에서는 설계 용역을 입찰로 발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공사에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주지토록 하고 전회원의 협조로서 入札에 응하는 회원이 없어 결국 모든 것이 수의계약 처리되었음.

끝으로 주요업무 내용의 제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기타사항: ☐ 會員設問조사 실시 후 協會運營에 參考 ☐ 淨化運動 적극推進 ☐ 建築關係法令集 發刊 ☐ 海外視察 유대강화 ☐ 17個 委員會 議運營 ☐ 세미나 및 강좌개최 ☐ 資格士制度의 改善點 건의 ☐ 會員名簿 發刊 ☐ 비위건축사 지도처리(윤리위원회) ☐ 건축기술향상 촉진강좌 ☐ 優秀建築資材展示會 開催 ☐ 건축사 협회 회관이전회의 계속 ☐ 건축 3 단체장 조찬회 계속 ☐ 協會연혁 책자 발간준비 ☐ 건축사 카드함 설치운영 ☐ 광고료 미수정리 ☐ 신규

직원 14명 채용 ☐ 대형공사 턴키베 이스 시정 촉구

- ☐ 협회 세규정 개정집 발간 ☐ 사정업무 5개년 계획 및 82년도 사정업무 계획수립 ☐ 정화 및 청탁배격 특별감사 전개 ☐ 회지 원고료지급기준 현실화 ☐ 건축 관계법 질의 142건 처리 ☐ 건축기술관계 도서 구입 활용 ☐ 건축표준 상해도집 복제인쇄 배부 ☐ 특별전형시험 강좌 ☐ 회장친서 3회 발송 ☐ 각 위원회 신입 위원 위촉패 제작 전달 ☐ 수재의연금 3백만원 기탁 ☐ 식수현금 50만원 기탁 · 원호성금 전달 ☐ 전임임원 공로패 전달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책자 인쇄 배부 ☐ 분소 업무지도강화 · 운영개선지도제공시달 ☐ 누적된 서류정리를 통한 업무능력 제고 ☐ 회관 내부 수리 ☐ 고문번호사 선임 ☐ 자문세무사 선임 ☐ 건설부 감사 수감 ☐ 각종 통계자료 수집 정리 ☐ 자재메이커의 협조로 매년 카렌다 제작 배부

도서 / 자료기증

“감사합니다”

韓國地名要覽

건설부 국립지리원이 펴낸 우리나라 地名要覽으로 한국지명요람 편찬위원회에서 편찬된 것이다.

이책에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地名에 관한 地理, 歷史 등을 종합하고 지도상에 수록될 地名을 위하여 복합지칭되고 있는 지명을 단일화하고 새로 제정이 필요한 지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地名의 연혁, 위치, 자연환경, 산업, 문화 등을 종합수록하고 있다.

☐ 건설부 국립지리원 발행 / 1982. 5. 10일

제 2 차 國土綜合開發計劃

국토개발연구원이 지난 80년2월 건설부의 의뢰로 연구한 보고서로서 이번에 이를 부문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이다.

모두 5 권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제 1 편 計劃의 目標와 開發政策, 제 2

편 人口定着基盤의 造成, 제 3 편 資源開發과 環境保全, 제 4 편 國民生活環境의 整備, 제 5 편 國土開發基盤의 擴充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부문별 보고서는 대상기간 향후 10년(1982~1999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 개발할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 국토개발연구원 발행 / 1982. 2.

國家技術資格便覽

技術資格檢定研究會가 펴낸 이 편람은 직접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각 분야에서 기술자격검정업무에 관계하는 이들이 항상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묶어 자료화 되어 있다.

내용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서식을 비롯한 관계법과 시행령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부록으로는 각종 기술자격 시험문제제출 및 관리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세진사 발행 / 값 5,000원 / 82. 7. 25.